



마취 세미나 종합토론

- 농가들 질문에 대한 답변 -

Q: 사슴을 관찰하다보면 발굽에 이상이 생겼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마취를 실시하지 않고도 관찰만으로 어느 다리가 아픈 다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A: 앞다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두 다리중 뒤로 뺀 다리가 아픈 발이다. 뒷다리의 경우는 앞으로 뺀 다리가 아픈 발이다. 아픈 발 중에도 발굽길이가 긴 쪽이 문제가 생긴 발굽인 경우가 많다. 만일 오른쪽 뒷다리에 부제병이 생겼다면 왼쪽 녹용이 덜 자란다. 반대로 오른쪽 뒷다리에 부제병이 왔다면 오른쪽 녹용이 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발굽질환은 철저히 치료를 실시해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 해마다 재발돼 발굽에 변형이 올 수 있다. 이 상태까지 진전이 됐다면 영원한 불치가 된다.

Q: 사슴에게 콩을 먹여도 괜찮은가?

A: 괜찮다. 다만 콩을 급여할 때는 삶아 먹여야 한다. 삶아 먹이지 않을 경우 성기와 신장, 녹용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Q: 사슴에게 옥수수의 기호성은 어떤가?

A: 사슴은 곡물사료 중 옥수수를 제일 좋아한다. 옥수수에 대한 기호성은 상당히 좋다. 옥수수를 많이 급여할 경우 사슴에게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하는 농가도 있는데 옥수수를 무제한 급식을 실시해도 사슴이 계속 먹지는 않는다.

Q: 자록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A: 무엇보다도 자록관리실을 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록관리실의 모양이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자록만 들어



▲ 종합토론시간. 평소 궁금했던 점에 관해 질의가 이어졌다.

갈 수 있는 크기라면 무방하다. 자육관 리실을 갖추면 자육의 성장이 빠르고 빨의 생산도 증가한다. 자육은 80일 이상 되면 어미사슴과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늦새끼의 경우 최소한 한달 이상 모유를 먹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Q: 구충제에 대한 설명 및 사슴에게 적당한 구충제를 소개해 달라

A: 정확한 약명을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구충제 중 간질충까지 박멸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 농가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구충제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구충제 주사시에는 근육주사를 실시해도 무방하다. 구충제 투여는 꼭 필요하지만 20일 이내에 제품 생산을 위해 사슴을 잡을 경우 구충제를 급여해서는 안된다.

Q: 자육이 태어났을 경우 배꼽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가?

A: 배꼽에 염증이 오면 감염이 발생하고 설사를 한다. 배꼽 소독을 실시해 주는 것이 질병 예방에는 좋으나 예민한 사슴의 경우 자육 배꼽을 소독하면 그 냄새로 젖을 먹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니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배꼽을 통한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슴장을 늘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Q: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또한 인공수정의 장단점 및 국내 인공수정 상황은 어떤가?

A: 본인 실험농장 사슴들은 정액을 채취해 직접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들에게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는 인공수정팀들이 국내에 몇 개 있으며 그 기술력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공수정의 장점은 첫째 소수의 우수사슴으로도 많은 수의 암사슴에 수정시킬 수 있고, 둘째 종자 개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셋째 분만시기를 앞당기는 수단으로 행함으로써 새끼사슴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넷째 인공수정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번식 부적합한 암사슴을 조기에 도태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수정기술이 향상되지 않으면 자연수정보다 수정율이 낮을 수 있고 노력과 비용이 집중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철저한 위생관리가 허물어지면 질병이蔓延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철저한 후대검정이 요구되며,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으므로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사육두수의 증가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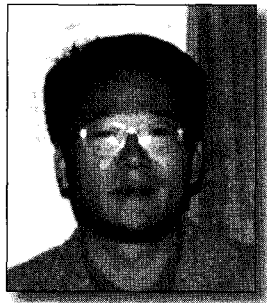


세미나를 마치고...

IMF이후 한국의 사슴산업은 어려움에 빠졌고 사슴가격은 하락해 사슴 사육산업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뉴질랜드의 질편농용 수입압력은 사슴사육자체를 불가능케 하는 압력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슴사육농민

에게 사슴에 대한 지식 수준과 사육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적이면서도 실효성이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였고 교육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통해 승산이 있는 산업으로의 유도가 필수적인 것이다.

우선 필자는 사슴사육농가의 절실한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알아본 바 “녹용절각에 필요한 마취지식과 절각요령, 마취 사고 방지요령” “질병발견 요령과 관리 원칙” “일반사육원칙”으로 집약되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3~4년에 걸쳐 해마다 테마를 정하여 사슴사육농민을 상대로 멋진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슴사육농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압축, 세미나의 형식을 취하여 시행하기로 필자는 마음을 먹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유 일 준
(유일동물병원장)

올해는 먼저 마취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코자 우선 각 관련 언론사를 통해 세미나에 관해 홍보를 실시했다. 그러자 이 내용을 보고 모 동물병원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사슴마취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수의사의 영역인데 사슴사육농가에게 마취관련 세미나

를 행하는 것은 사슴사육농가에게 자기치료를 유도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수의사의 업무영역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의견은 대한수의사회에 민원으로 접수되었으며 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필자는 답변요지로 “사슴사육농가의 생존과 사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슴사육농가에게 세미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행사가 필요한 바 수의사의 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세미나에 따른 반사효과로써 수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일준 수의사가 본인의 마취약을 팔기 위한 일종의 쇼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한 걱정은 가능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우려는 유일

준 수의사를 모른 채 하는 말일 것이다.

3월20일 행사 아침이 밝았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되나 행사장소 지리를 묻는 전화가 쇄도하여 필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급기야 필자의 휴대폰을 세미나 참석자에게 넘겨주었고 길 안내는 다른 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10시경 필자는 전화 받기에 이미 지쳐 있었다. 10시경부터 세미나 참석인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였고 주차장 문제가 일차적으로 제기되었다.

행사시작 10분전 참가접수 인원이 140명을 훨씬 상회한다는 전갈이 있었다. 140명 외에 진행요인 17명과 기타 인원 등이 복새통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정시에 행사는 시작되었고 60분에 걸쳐 마취에 관한 사항, 난산에 대한 필자의 강의가 실시됐다. 강의 중에는 어느 누구도 잡담도, 조는 이도 없이 수백개의 눈과 귀가 필자에게 집중되었다. 그 동안 수많은 강의 경험이 있지만 이날처럼 참가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일은 없었다. 휴대폰을 꺼달라는 안내 방송도 없었지만 울리는 휴대폰 소리도 전혀 없었다. 정말로 대단한 열의가 솟구치고 있었다. 이러한 열기라면 한국양육의 전망은 문자 그대로 탄탄대로임이 틀림없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준비한 200개의 의자가 꼭 채워지고 필자와 참가자들은 문자 그대로 한마음이 되어 있었다. 감사의 말씀을 끝으로 마취 실습에 들어갔다. 실험동물이니 걱정 말

고 마취 실습을 하실 것을 당부하고 마취사고가 발생해도 무방하니 소신껏 마취실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각종마취제를 사용하여 11두의 사슴에 마취가 되었고 회복상태까지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슴세미나의 실습중 너무 많은 참석자들이 몰려다니는 바람에 앞에 위치한 분은 관촬았으나 뒤에 위치한 분들은 관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다시 말해 진행에 대한 필자의 큰 실수였다. 일찬 실습과 세미나를 위해서는 잘못된 것이었다. 조로 나누어서 실시할 것을! 즉 10여명씩 조를 편성하여 실습을 해야 했는데... 아쉬움이 컸다. 열기 속에서 종합토의를 마친 후 16시 정각에 행사는 마감됐다.

처음 실시한 마취 행사, 더욱이 대규모 인원의 참여로 인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4월17일에 예정된 행사는 금번 행사를 거울삼아 더욱 내실 있고 알찬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약속드린다.

참여해주신 모든 양육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유한양행, 사슴신문, 현대상사, 한중마그네슘, 소망사슴농원, 서산사슴목장, 동양사슴목장, 흥정사슴농장, 건국대학교 대학원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인국양육**